

전 남

“오동도 관리 국가 환원 안된다”

여수시 “시민 휴식공원·박람회 성공 개최 위해 지자체 관리 바람직”

행안부·환경부에 건의서 제출

여수시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인 오동도의 관리권이 국가 사무로 환원되는 것에 반발해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오동도와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국가 환원 대상 사무로 결정해 여수시에 통보했다.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는 국립공원 중 오동도와 한라산 2곳만 그동안 해당 지자체가 관리를 해 왔으나 감사원과 국회 등이 관리의 일원화를 수차례 지적해 관리권을 국가사무로 환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재 후속 조치를 발빠르게 취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와 제

주도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오동도 관리업무 국가환원 결정에 따른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관리권 환원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05년부터 오동도 관리를 시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즐기차게 개진해 왔었다.

여수시의회도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 역시 제주 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고도의 분권자치 보장’과 맞지 않는 점을 들어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관리권 환원에 반발하고

있다. 여수시는 오동도 부지 총 면적(21필지 12만7656㎡) 중 시가 90%(16필지 11만5490㎡)를 소유하고 있고, 40년동안 각종 예산을 투입해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남해안의 대표적 명소로 관리해 온 만큼 도시공원 관리차원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기간 중 1일 9만명의 관람객이 오동도를 방문할 것에 대비해 탐방객 이동경로, 안내표지 정비,오동도 입장 방법, 방파제 안전관리 대책 등 박람회 대비 종합 대책을 수립해 예산 확보 중에 있다. 시가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시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도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동도 관리부서의 조직내 재배치도 힘

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관리권 국가 사무 환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리권이 국가로 넘어가면 현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연간 5~6억원 정도의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특히 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고려할 때 시가 관리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동도는 해방이후 적산으로 여수 교육지원청이 물려받았으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지난 1969년 9월 여수시에 2000만원을 받고 관리를 양도한 이래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전남도 관리하에 있다가 지난 1985년 9월 16일 공원관리권이 여수시로 이관됐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강진 청자축제’ 세계 축제 자리매김

외국인 1만3천명 포함 방문객 90만명 청자 판매 등 수익 38억원 역대 최고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열린 ‘제39회 강진 청자축제’가 방문객 수와 청자판매액 등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 역대 최고 인파인 90만4400여명의 가족단위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방문했고, 청자판매를 비롯한 축제입장료·향토음식점·각종 체험비 등 수익이 37억800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축제 하이라이트는 청자판매의 폭증이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됨을 기념하기 위해 관

요, 개인요업체 모든 매장에서 30% 할인 판매했음에도 폭발적인 판매를 기록해 연일 화제가 됐다.

올해는 전통 강진청자 미(美)에 고객들의 취향을 살려 실용성과 편리함을 더한 다양한 생활자기를 선보여 젊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전년도(6억5500여만원)보다 16%나 증가한 7억5890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번 축제는 1만36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줄을 이어 세계인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특히 이번 축제는 주 무대인 청자촌 뿐만 아니라 강진아트홀 등 강진 전역을 축제장화해 관광객을 맞이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강진읍에서 청자축제장으로 향하는 해안도로 아



강진 청자축제 행사장에서 관광객들이 청자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래에 펼쳐진 다채로운 어촌체험과 가우도 출렁다리 건너 등산로 산책, 강진만 관광 선상체험, 운누비호 승선체험, 토요음악회 등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무엇보다 장흥군과 손을 잡고 ‘불과 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공동 홍보하고 상호 협력해 새로운 축제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이번 축제가 성공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5만 군민과 800여 공직자, 봉사자 등 자원봉사자들이 혼연일체가 돼 함께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강진군은 오는 2014년 7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강진군 대구면 청자도요지 일원에서 ‘청자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l@

‘강진 고려청자 요지’ 천년만에 제 이름 찾아

문화재청, 명칭 변경 고시

강진 고려청자를 굽던 요지(窯址)가 1000년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다.

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날 28일자로 기존 ‘강진 대구면 도요지’에서 ‘강진 고려청자 요지’로 명칭을 변경·고시했다.

전남도와 강진군, 강진군의회,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강진청자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영국 대영박물관,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지에서 ‘고려청자’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명칭변경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역

사적 문헌, 고증, 유적명 등에 지역명을 병기해 문화재의 이해를 제고하고 역사적 성격 회복을 위해 ‘강진 고려청자 요지’로 변경했다. 다만 도자기용어 중 청자 한자표기는 ‘靑磁’에서 ‘靑’로 통일했다.

한편 강진 고려청자는 9세기경부터 14세기에 이르기까지 500년간 고려왕실에 납품했던 유일한 관요(官窯)로서, 독자적인 삼강청자를 창안해 우수성을 과시하며 명성을 떨쳤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l@

국내 최초 3D 애니 ‘홍길동 2084’ 18일 첫선

12일 서울서 시사회

국내 최초 3D 입체 애니메이션 영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홍길동 2084’가 3년여만에 완성돼 오는 18일 첫 선을 보인다.

장성군은 “전국 극장 개봉에 앞서 오는 12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 CGV 서 언론인, 영화제작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길동 2084’ 시사회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홍길동 문화콘텐츠 육성사업의 일

함으로 제작된 ‘홍길동2084’(제작 ㈜바이너리픽션·배급 ㈜타임스토리그룹)는 2084년 ‘율도 시티’라는 가상의 미래를 배경으로 홍길동이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우며 활약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번 영화에서 홍길동은 고전속의 캐릭터와는 달리 바이크를 타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몬스터와 싸우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무술을 바탕

으로 전개되는 뛰어난 액션 신은 감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국내 최초 3D 입체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과 환상적 SF 판타지 어드벤처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아이돌인 ‘유키스’의 동화가 주인공 ‘홍길동’ 목소리를 맡아 화제가 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3년이라는 긴 제작기간을 함해 영화 완성도를 높였다”며 “최고의 스태프들이 심혈을 기울인 만큼 이번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물로 흥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밤하늘 열린 음악회 11일 곡성 섬진강변

곡성 섬진강변에서 여름 무더위를 씻어주는 음악회가 열린다.

곡성군은 오는 11일 석곡대항강 코스모스 축제장에서 ‘별빛 밤하늘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날 28일과 4일 곡성읍과 옥파면에 이어 ‘별빛 가득 살고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주제로 벌이는 3번째 음악회다.

이번 공연에는 7080 통기타 콘서트, 민요 등 흥겨운 노래와 주민이 자신의 장기를 뽐내는 참여무대도 마련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공연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서울서 ‘곡성 멜론 먹기 마라톤대회’

재경 곡성향우회와 곡성멜론 주식회사는 곡성의 특산품인 멜론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6일 서울 신대방역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 멜론 먹기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곡성군 제공)

이 가운데 아열대 채소 6종의 경우 ▲시설 및 노지재배 가능성 검토 ▲간접 육묘방법 개발 ▲지역 작음 우량품종 선발 ▲가공이용·유리병 개발 등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열대채소 농가 새 ‘블루오션’ 육성

전남도 농기원

오크라, 아스파라거스 등 이르면 생소한 아열대채소가 농가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아스파라거스, 오크라, 열대 시금치, 모로헤이아, 아피오스 등 아열대채소

6종 작목을 전남도 유망 아열대작목으로 선정해 연구개발중에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9년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작물 소득화 연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아열대 채소와 과수 34종을 도입해 재배 적응성과 소득작목 육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영사거리내)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산월C 교통광장 접 코너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부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임야:470,000평, 단층건물:250평(5동)
단지내 도로개설될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대 지: 250평(30×8코너)
가로32m, 세로26m(분할가능)
▶급 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높 이: 8.9, 10.9m
▶호이스트: 유, 유, 유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토 지 매 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 지 : 4,000평
•전 : 9,500평
•합 계 : 13,500평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중개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앞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근린시설/원룸 김태호전문부사 011-684-3886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정/토지 정이사 010-5879-0005
아파트/빌라 양준혁팀장 010-3171-6536
주책/재개발 양준혁팀장 010-3171-6536
근린주택 정이사 010-5879-0005
병원,교회,사옥,모텔,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가(실전)과정」
2학기(15주) 수강예약 2011년 8월 31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교육반 정원 50명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